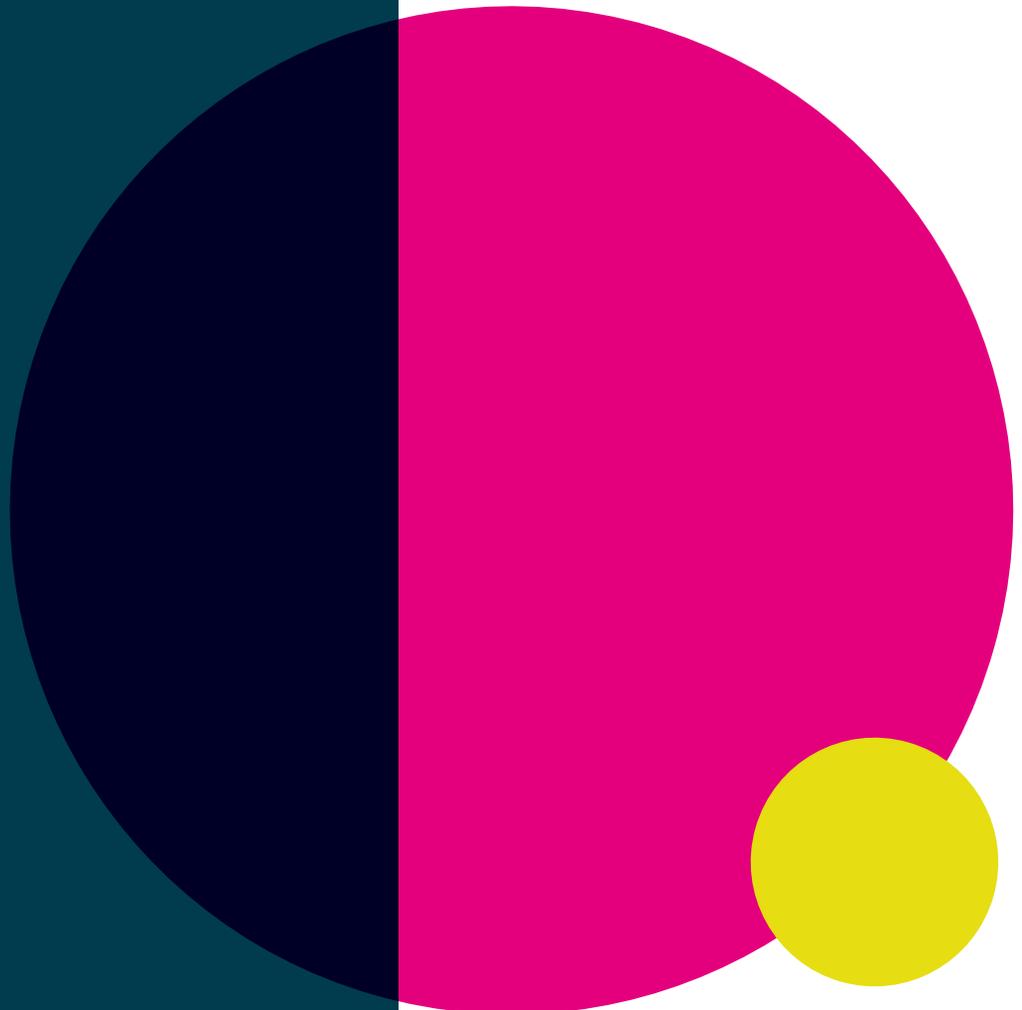


Think Global Trade Social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가?



서문

2015년은 지구와 인류에게 중대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구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며,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도전과제는 원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과 경제 구조는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우리가
창조하여 거래하는 방식에 의해 형성됩니다.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의 이면에 놓인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오직 행동해야 합니다.

전 세계는 사회적·환경적 목적을 가진 무역 활동, 부의 재투자,
개방과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 사업과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영감을 주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기업 활동의 주요 목적에 두는 것은
21세기의 경제를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노벨상 수상자



린다 맥아반 MEP
유럽의회 국제개발위원회의장



2015년 9월

Think Global Trade Social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가?

서문	02
서론	04
새천년의 도전과제	05
상호 연결된 과제와 불평등의 심화	06
현재의 목표	10
수단과 자금	12
대응	20
사회적기업의 대두	22
결론	26
제언	27

서론

본 보고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목적을 지닌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불평등을 개선하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추구하는 도전과제를 해소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향후 15년 간의 전세계 개발의제를 설정하는 주요 기점인 UN의 SDGs 채택 이전에 출간된 본 보고서는 먼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인류가 마주한 최대 도전과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중심에 소득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정책결정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우리는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용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국제무역, 투자 및 기업 활동은 경제적 변형과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회적·환경적 목표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은 보다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사회적기업은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 주목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의 이익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며, 영업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실현한다. 사회적기업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지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역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지만 주된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은 삶을 구현하는데 있다.

전 세계의 정치인, 관료 및 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지닌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SDGs는 기업활동 중 책임 있는 무역,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기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기업활동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아직 제한적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환경적 목표를 구현할 정책과 구체적 행동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과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넓히고 사회적으로 무역하는 것. 이것이 당면한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다.

새천년의 도전과제

지난 세기 말, 전 세계 189개국의 수장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수립했다. 이 광범위하고 야심찬 목표는 2015년을 달성 기한으로 수립되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빈곤을 종식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보다 정의롭고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려는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약속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많은 성과가 있었다. 상당수 국가들이 주요 목표를 성취하였고, 수백만 명의 삶이 변화하였으며 인류 공동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U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00년도 이후 인류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빈곤감소를 달성했다. 하루 1.25 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는 5억 명 이상 감소하였고, 아동사망률은 30% 이상 하락하여 2000년 대비 매년 3백 만 명의 목숨이 구제되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¼ 가량 줄어들었다.”¹

하지만 많은 측면에서의 실패도 있었다. 전 세계 극빈층은 2000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² 여전히 10억명의 인구가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초등교육의 보편화는 달성하지 못했고,³ 전 세계 여성은 아직도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다. 아동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을 2/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⁴ 산모보건의 개선은 달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된 측면도 있다.⁵ 2010년 330만명이 HIV에 감염되었고,⁶ 일부 지역에서 결핵감염률은 여전히 1990년 수준으로 높다.⁷ 탄소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50% 증가하였다.⁸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강화되어,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국제사회가 약속한 이행공약은 공약으로만 남았다.⁹

¹ http://www.un.org/sg/management/pdf/HLP_P2015_Report.pdf

² <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monitoring-report/report-card/twin-goals/ending-extreme-poverty>

³ [http://www.un.org/millenniumgoals/2015_MDG_Report/pdf/MDG%202015%20rev%20\(July%201\).pdf](http://www.un.org/millenniumgoals/2015_MDG_Report/pdf/MDG%202015%20rev%20(July%201).pdf)

⁴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5843#.VemO7mBRFMs>

⁵ <http://www.un.org/millenniumgoals/maternal.shtml>

⁶ http://www.who.int/hiv/pub/progress_report2011/global_facts/en/

⁷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104/en/>

⁸ http://edgar.jrc.ec.europa.eu/news_docs/jrc-2014-trends-in-global-co2-emissions-2014-report-93171.pdf

⁹ <http://www.euractiv.com/sections/development-policy/europe-africa-fall-short-development-goals-308999>

상호 연결된 과제와 불평등의 심화

앞서 밝힌 대로 15년 전의 목표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였다. 정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상호 연결된 복잡한 국제시스템의 산물이라는 것을 간과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빈곤은 분명 기아, 모자보건과 연계된 개념이다. 분쟁, 이주,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과제들 중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단독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과제의 중심에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소득불평등 심화는 지난 10년간 매일 이 문제로 직접 싸워온 사람들뿐 아니라, 정책결정자 및 국제기구, 학자들에게도 주요 의제로 급부상하였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지난 3년 연속 최대의 국제 리스크로 소득 격차를 꼽았다.¹⁰ 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 아시아 전역의 불평등 확대를 지역 안정성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정의하였다.¹¹ 2015년 초, IMF는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글로벌 관점에서(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n 2015)>라는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우리 시대의 명백한 도전 (defining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IMF의 수장 Christine Lagarde는 “경제성장으로 너무 많은 나라들이 호화로운 요트로 파도를 타고 항해를 즐기게 되었지만, 작은 보트를 띄우지는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²

그렇다면 소득불평등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세계은행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은 통계자료가 제공된 개도국의 절반 이상에서 증가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감소”¹³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 개도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7%를 기록”한 반면, “많은 나라에서 성장과 빈곤감소는 불평등 확대를 동반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28개국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2010년 아시아 개도국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2개국에서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¹⁴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빈곤층의 거의 3/4이 중소득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빈곤층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빈곤과 불평등은 국적이 없으며 국가 내 불평등도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만의 위기로 규정할 수도 없으므로, 모든 논의의 초점은 경제 내부의 불평등으로 확대되었다.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IMF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5년 뒤 0.38% 증가하지만, 소득 상위 20%의 부가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오히려 0.08% 줄어드는 것”¹⁵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2015년 5월 발표된 OECD의 <함께 하기: 불평등 감소가 왜 모두에게 이로운가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보고서는 성장이 어떻게 상위 소득계층에게 더 이익을 주고 하위 소득계층은 소외시키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소득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심화될 경우, 사회적, 정치적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야기한다. 왜냐하면 소득불평등은 곧 GDP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¹⁶

우리는 놀라운 글로벌 경제성장을 경험했지만 소득평등을 이루는 데 실패하였고 이는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직면한 상호연관된 사회적, 환경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한다. 지구 상 가장 가난한 자들은 주어진 경제환경 내 교육, 보건의료 등을 개선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권리에 입각한 (rights-based) 경제성장모델과 Amartya Sen의

¹⁰ www.weforum.org

¹¹ <http://www.adb.org/documents/adb-annual-report-2012>

¹² <https://www.imf.org/external/np/speeches/2015/061715.htm>

¹³ elibrary.worldbank.org/doi/pdf/10.1596/9780821397572_CH05

¹⁴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156318/adb-annual-report-2012.pdf>

¹⁵ <http://www.theguardian.com/business/economics-blog/2015/jun/21/so-much-for-trickle-down-bold-reforms-are-required-to-tackle-inequality>

¹⁶ <http://www.oecd.org/els/soc/OECD2015-In-It-Together-Chapter1-Overview-Inequality.pdf>

‘자유로서의 개발(Development as Freedom)’은 이론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칭송 받았지만, 실제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진 않는다. 이것은 경제적, 민주적 결핍이다.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경제모델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개발을 도모할 대안을 찾고 있다. 우리는 지금보다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경제성장모델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교육, 식량 등 필수요소에 대한 보다 평등한 접근을 이루고자 한다면 경제 불평등이 이를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내 가중되고 있는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대한 도전과제가 되었다. 2015년 이후 우리의 과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leave no one behind)이다.”¹⁰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Café Dir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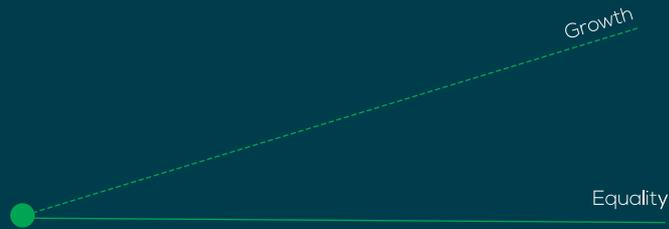
Café Direct는 1991년 Oxfam, Traidcraft 등에 의해 공동 설립되었다. 영국에서 공정무역마크가 붙여진 첫 커피브랜드로, 커피 뿐 아니라, 차, 초콜릿 등을 파는 영국의 첫 공정무역 식품회사이다. 영국의 슈퍼마켓에서 처음으로 공정무역상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내 공정무역운동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었다. 창립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영국 내 주요 커피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Café Direct는 여러 개도국의 커피, 차, 코코아 생산자에게 시장가격 이상을 지불하여 거래함으로써 경제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농부들은 회사지분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 이러한 ‘사회적 프리미엄’의 정점은 이윤의 50%를 농부와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농부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파트너들이 협동조합이나 지역사회형 사업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파괴를 예방하고자 한다.

www.cafedirect.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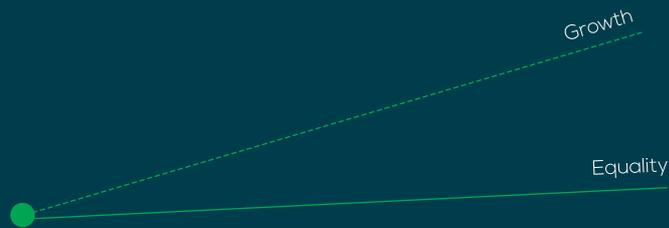
소득 불평등과 성장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가 놀라운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은 이전과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성장의 수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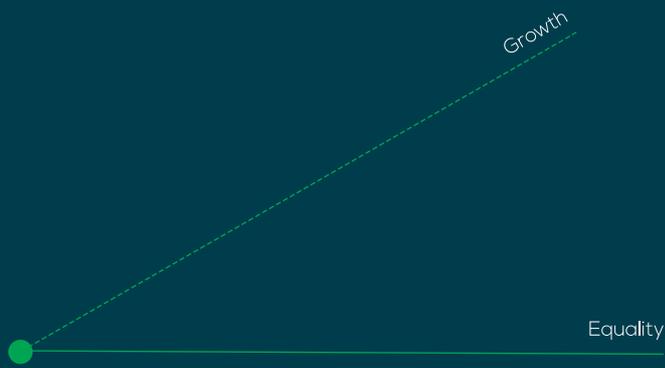
모로코

모로코는 2001년~2007년 동안 연평균 4.65%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중 소득불평등은 연평균 0.12% 악화되었다.



태국

태국은 2002년~2010년 동안 연평균 4.51%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중 소득불평등은 연평균 0.77%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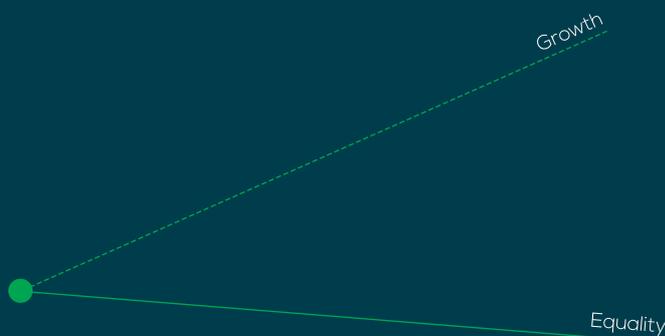
인도

인도는 2004년~2011년 동안 연평균 8.24%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중 소득불평등은 연평균 0.09% 악화되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02년~2011년 동안 연평균 5.62%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중 소득불평등은 연평균 3.14% 악화되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2004년~2010년 연평균 6.57%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중 소득불평등은 연평균 1.25% 악화되었다.

현재의 목표

2015년 9월, 전 세계의 수장이 뉴욕에 모여 세계가 처한 도전과제를 파악하고 새롭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여러 세부 목표를 포함하며, 향후 15년간 UN 회원국의 의제를 설정할 것이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파리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지구 온도 2°C 상승을 억제할 법적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목표는 새천년 이래 경험한 우리의 교훈을 반영해야 한다. 외부의 비평가들 및 내부인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불평등 개선과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MDGs에 대한 UN 자체 평가결과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MDGs는 지구상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MDGs가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호 연관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노력은 분리되어 있었다.”

이후 새로운 개발목표를 합의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여러 층위의 협상을 나누었고, 현재 17개 목표와 169개 지표를 수립하게 되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거시적 **목표설정**: 예) 빈곤종식
- 글로벌 도전과제의 근본 **원인**에 집중
-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하는 **보편적 접근**
- 국내 뿐 아니라 국가간 **불평등** 해소에 더 큰 집중
-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의 상호연관성을 반영하여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 지향
-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지향

핵심내용의 변화와 더불어, SDGs 및 이후 행동들은 MDGs 자체의 성격, 규모, 범위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목표달성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은행장 Artur Rahman은 “기존의 화폐금융적 접근에 기반한 단기적 비즈니스 사이클은 포괄성과 환경지속성에 대한 장기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다¹⁷”고 비판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체제 전환을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비즈니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국가도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함에 있어 보다 증명된, 실용적인 수단과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FRIpads

AFRIpads는 한 달에 5일 이상 결석을 하여 학업에서 뒤쳐지는 소녀들을 돕기 위한 우간다의 사회적기업이다. 이 업체는 위생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실용적인 생리보건대책으로 소녀들이 생리기간 중에도 편안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생리대를 만들어 판매한다.

우간다 지방의 키텐기사 마을에 위치한 AFRIpads는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직원 100명 이상을 채용했다. 매달 3만개의 AFRIpads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50만 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을 돕는다. AFRIpads는 NGO, 국제원조기구 및 우간다 내 개인 바이어들에 의해 아프리카 내 이웃 국가에도 판매된다. 이 사업은 재사용이 가능한 생리대의 국제적인 공급망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www.afripads.com

수단과 자금

국제개발을 도모할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원조를 떠올린다. 원조는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종류의 개발재원을 포함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ODA를 'OECD 회원국이 개도국의 복지와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양허성 자금'¹⁸이라 정의한다.

1970년 주요 공여국은 GNI 대비 0.7%를 원조에 지출하기로 첫 합의하였고, 이후 국제사회는 이러한 ODA 공약을 여러번 재확인하였으나 대부분은 이행하지 못하였다. 현재 세계 5대 공여국 중 영국만이 0.7% 이행목표를 달성하였다.¹⁹ 2013년 UN이 발간한 개발파트너십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원조는 여전히 개발재원의 주요 수단이며, 국제사회는 특히 도움이 절실한 국가들을 위해 ODA 이행목표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은 개도국의 국내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굿 거버넌스 확립, 자본도피 방지 등에 지원되어야 한다."²⁰

2013년 ODA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²¹ 일부 국가에서 원조는 여전히 주요 자원이다. 예를 들어 라이베리아의 경우, 2011년 수원받은 원조액이 정부지출을 초과했다.²² 르완다의 경우, ODA는 정부지출의 80%에 달하는 규모이다.²³ 그러나, 최근에는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UN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향후에도 계속 감소될 것"²⁴이라 전망한다.

최근 원조 커뮤니티는 협력과 협업을 강조한다. 영국 국제개발부 Jonathan Wong은 "영국 국제개발부는 전통적으로 혁신의 수단으로 경쟁을 활용해왔다... (중략)... 하지만 지금의 목표는 협업을 창출하는 것이다."²⁵ 2015년 EU 개발협력의 해 (European Year for Development) 또한 협력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공여국-수원국 관계는 협력, 상호 존중, 상호 이익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설명하였다.²⁶

ODA는 1,348억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국제무역은 차원이 다르다.

전세계 GDP 규모는 연간 75조 달러이고 국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23조 달러에 달한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는 이러한 경제 활동이 원조의 흐름과 비교하여 개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신흥개도국은 지난 10년간 국제경제를 이끌었고, 선진국으로부터의 ODA가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의 경제활동이 전세계 빈곤감소를 이루었다."²⁷ 개도국은 현재 국제무역거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UN은 "무역은 여전히 가장 신뢰가능하고 생산적으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빈곤국이 무역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을 통해 원조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²⁸ 고 주장한다. EU 역시 원조와 개발협력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인도적 지원은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개발협력은 중장기적 지원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²⁹

현재 경제 시스템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고 긍정적, 부정적 성과를 창출하며, 번영을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능력을 결정한다. 원조가 아닌 무역은 전기, 수력, 식량 및 교육 등 중대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무역과 기업활동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번영을 가져올 주요 요소로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위한 계획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EU는 "민간부문은 개도국 일자리의 90%를 창출하기 때문에 빈곤퇴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³⁰라고 말한다.

국제무역은 국제자본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개도국은 5조 규모의 국부펀드와 해외직접투자를 운영한다.³¹ 또한 매년 인프라에 1조 달러를 투자하고 채무이행을 위해 5억 달러를 사용한다.³² 하지만 원조는 1,348억에 불과하다.

국제기구 또한 이러한 투자가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개발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는 "우리는 민간부문 투자를 지원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빈곤층식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수조 달러를 운영할 것이다."³³ 라고 말한바있다.

¹⁸ devinit.org/global-aid-trends-need-know

¹⁹ www.oecd.org

²⁰ www.un.org/en/development/desa/.../glob_dev_rep_exec_sum2013.pdf

²¹ http://www.un.org/millenniumgoals/2014%20MDG%20

²² http://devinit.org/global-aid-trends-need-know

²³ http://devinit.org/wp-content/uploads/2014/03/Global-aid-trends-ODA.pdf

²⁴ http://devinit.org/global-aid-trends-need-know

²⁵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rofessionals-network/2015/apr/14/collaboration-not-competition-could-this-be-the-future-of-development?utm_content=bufferc5764&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buffer

²⁶ https://europa.eu/eyd2015/en/content/about-2015

²⁷ http://www.odi.org/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7905.pdf

²⁸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licy/untaskteam_undf/thinkpieces/22_thinkpiece_trade.pdf

²⁹ http://ec.europa.eu/echo/partnerships/european-and-international-cooperation/european-year-development-2015_en

³⁰ 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51_en.htm

³¹ unctad.org/en/pages/PressReleaseArchive.aspx?ReferenceDocId=2714

³² http://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4/10/09/world-bank-group-launches-new-global-infrastructure-facility

³³ www.worldbank.org/en/news/.../financing-the-future-of-development

피케티: 무역을 통한 이익과 불평등

2014년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국제적인 반향과 지지, 그리고 일부의 비판을 얻었다. 그가 활용한 계량경제방법론의 우열을 떠나,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 것은 그의 핵심가설이다. 피케티의 분석은 세상이 부를 얻는 속도보다 부자가 더 빨리 부를 축적한다면 불평등은 증가한다는 간단한 가설에서 출발한다.

피케티는 불평등이 가차없이 증가하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자본으로부터 얻는 소득과 노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보다 조화롭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산가가 불로소득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윤이 사회적으로 보다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무역을 통한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 지에 대해 보다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UN은 “무역을 통한 이윤은 지리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부국에 편향되게 배분되었다”며, “무역을 통한 이득의 배분에 있어 다국적 기업의 영향이 증가”³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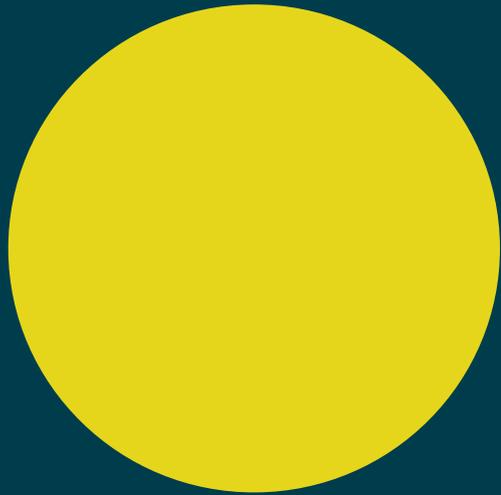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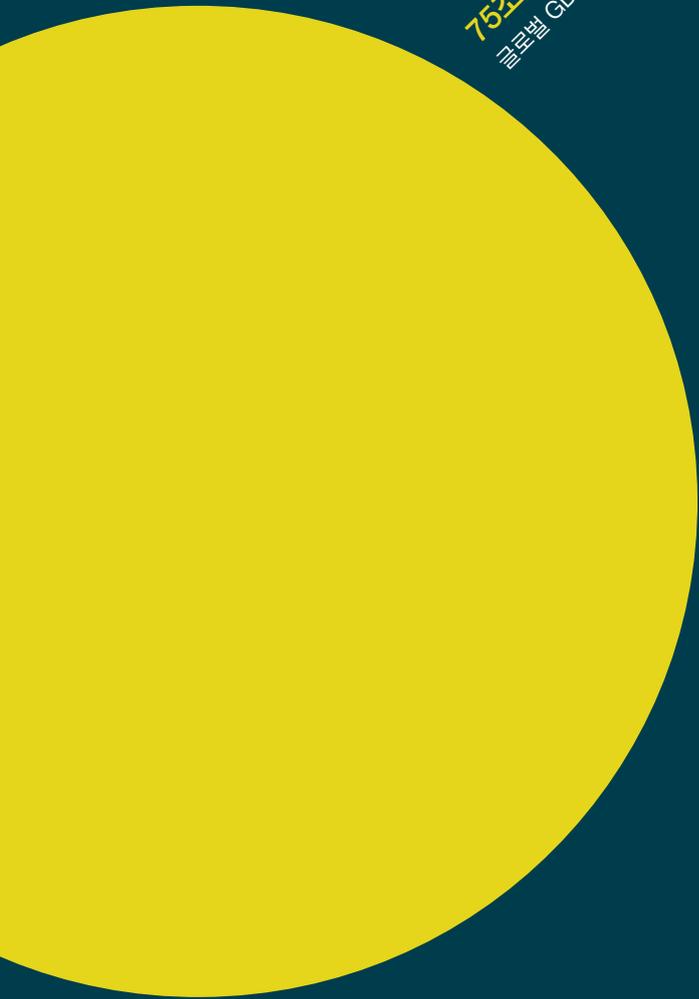
따라서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역과 투자의 조건, 부자와 가난한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재균형을 이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자본흐름의 상대적 규모³⁵

국제 무역, 투자, 송금, 원조, 채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임팩트 투자의 상대적 규모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국제개발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과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75조 달러³⁶
글로벌 GDP

23조 달러³⁷
국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³⁵ 원의 크기는 통계에 기반하여 그려진 것이 아님을 밝힌다.

³⁶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DP.pdf>

³⁷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14_e/pr721_e.htm

³⁸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ir2014_en.pdf

³⁹ econ.worldbank.org

⁴⁰ http://data.worldbank.org/sites/default/files/gdf_2012.pdf

⁴¹ <http://www.ft.com/cms/s/0/95239a6e-4fe0-11e4-a0a4-00144feab7de.html#axzz3asBChleK>

⁴² <http://www.thegiin.org/binary-data/2014MarketSpotlight.PDF>

NB: 모든 수치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작성됨.

UN은 다음의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총 5조 규모의 국부펀드 중 단 2%만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다.”⁴³ EU 역시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다. “보조금이 전략적으로 활용된다면, EU 집행위원회가 인프라투자를 위한 개발재원을 추가 배분하는데 영향을 준다… (중략) …따라서 개발재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혼합금융의 확대는 개발재원의 제공자인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한다.”⁴⁴

세계은행은 “2020년까지 중저소득국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조~1.5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⁴⁵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의 2015년 개발위원회 커뮤니케(2015 Development Committee Communiqué)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략) …ODA뿐 아니라 민간자본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재원을 활용”⁴⁶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기업활동과 평등,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지닌 기업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UN은 투자 흐름과 목적의 연관성에 대해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자원 전략과 이행약속, 차관정책 및 분야별 행동계획은 SDGs 목표(goals) 및 세부목표(targets)과 연관되어야 한다.”⁴⁷고 말한다. 미국 존 캐리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투자 및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임팩트경제포럼(global impact economy forum)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이 포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투자의 성과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⁴⁸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원조의 영향력을 낮추는 기타 자금흐름도 증가하고 있다.

- 개도국 내 조세는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내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역자유화가 국제경제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개도국으로의 수입 중 80%는 선진국에게 돌아가고, 면세와 관세 면제는 사상 최저수준이다.”⁴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내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ODI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조세율은 2000년 23%에서 2011년 29%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송금은 2001년과 비교 시 2010년 명목규모가 3배 가량 증가하여 2012년 ODA의 4배 규모인 5,300억을 기록하였다. 평균 송금수수료는 8% 이상⁵⁰으로, 수수료 만으로도 국제 소셜 임팩트 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의 3~4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역외펀드, 탈세, 부패, 이전 가격조작, 밀수 등 불법자본 도피는 2012년 1조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9,910억을 기록했는데, 이는 ODA 보다 8배 큰 규모이다.⁵¹ 21조~32조 정도의 자산이 역외 조세 피난처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된다.⁵²

⁴³ http://www.un.org/sg/management/pdf/HLP_P2015_Report.pdf

⁴⁴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52014DC0263>

⁴⁵ <http://www.worldbank.org/en/topic/publicprivatepartnerships/brief/global-infrastructure-facility-backup>

⁴⁶ <http://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5/04/18/financing-the-future-of-development>

⁴⁷ www.un.org/en/.../policy/.../21_thinkpiece_financing_development.pdf

⁴⁸ <http://www.state.gov/r/prs/ps/2015/05/242712.htm>

⁴⁹ www.undp.org/content/undp/en/home/mdgoverview/mdg.../mdg8.html

⁵⁰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4/aug/18/global-remittance-industry-choking-billions-developing-world>

⁵¹ www.gfintegrity.org

⁵²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7/22/us-offshore-wealth-idUSBRE86L03U20120722>

소셜 임팩트 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

지난 10년 간 영국, 미국 및 기타 G7 국가에서는 소셜 임팩트 투자의 영향력과 잠재력을 강조해 왔다.

Post-2015 개발 어젠다 특별 고위급패널(High-level Panel) 보고서는 소셜 임팩트 투자의 잠재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관련 투자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영리민간기업과 보조금 및 자선에 기반한 원조 프로그램 사이에 “제3의 길”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경제적 수익을 얻으면서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순수영리활동이나 자선이 아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적 틀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분야의 육성을 위해 법적 토대를 어떻게 수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⁵³

소셜 임팩트 투자는 아직 시작단계이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소셜 임팩트 투자의 규모는 106억 달러로 여타 자금흐름의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편이다.⁵⁴ 사회적 투자 활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매우 작은 투자도 있고,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역시 시행초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액금융(Microfinance)은 ‘수 백 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보조금에 대한 과잉의존 문제와 가장 빈곤한 사람들은 제외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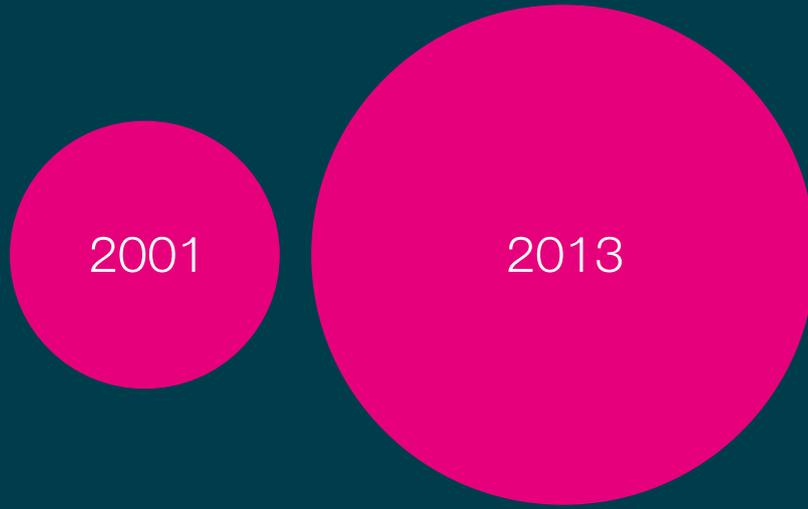
사회적 투자자들은 금융이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다. 지역사회공유(Community share), 동료대출(peer-to-peer lending),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등 일부 모델 역시 최근 급성장했다. 이러한 모델이 국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판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

⁵³ <http://report.post2015hlp.org/digital-report-chapter-2.html>

⁵⁴ http://www.thegiin.org/binary-data/RESOURCE/download_file/000/000/662-2.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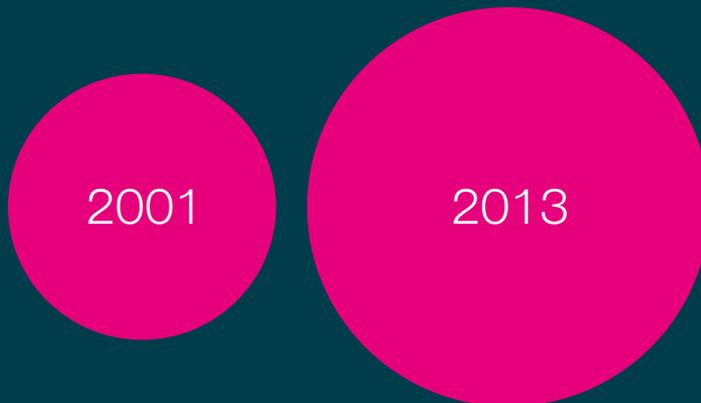
국제 자금흐름의 규모 변화

지난 10년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200%,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00%, 송금은 500% 증가하였다.⁵⁵ 하지만 원조는 50% 증가에 그쳤다. 중소득국의 경우, GDP 대비 ODA 비율은 2000년대에 비해 절반 규모로 감소했지만 FDI나 송금은 모두 증가했다. 저소득국가는 여전히 ODA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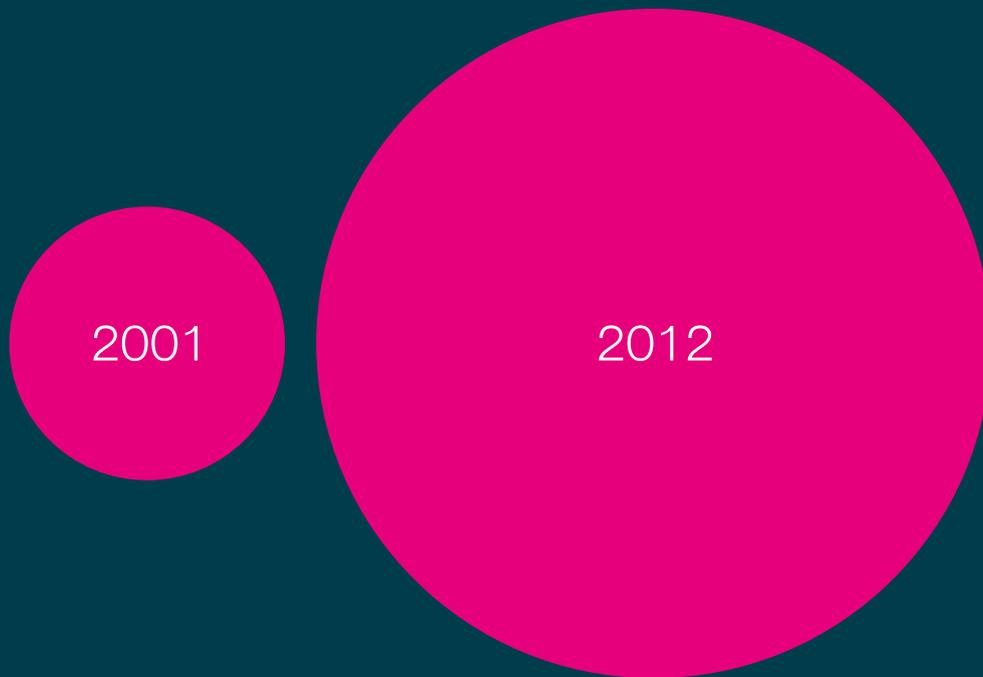
FDI

개도국으로의 FDI는 2001년 2,260억 달러에서 2013년 7,78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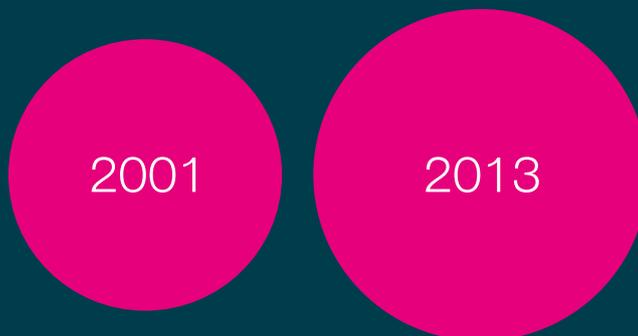
글로벌 GDP

글로벌 GDP는 2001년 33조 달러에서 2013년 75조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⁵⁷



송금

송금은 2001년 898억 달러에서 2012년 5,300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⁵⁸



원조

원조는 2001년 930억 달러에서 2013년 1,348억 달러로 50% 정도 증가하였다.⁵⁹

⁵⁵ <http://www.odi.org/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7905.pdf>

⁵⁶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ReportId=88>

⁵⁷ <http://wdi.worldbank.org/table/4/2>

⁵⁸ <http://www.odi.org/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7905.pdf>

⁵⁹ <http://www.oecd.org/newsroom/aid-to-developing-countries-rebounds-in-2013-to-reach-an-all-time-high.htm>

NB: All figures are current prices

대응

SDGs 시대의 시작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MDGs 달성의 실패, 새로운 목표의 상호연관성, 우리 시대의 중대과제로서 소득불평등의 부상 등을 반영하여, 우리는 다음의 6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SDGs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계기로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실용적이고 시장 주도적인 수단과 메커니즘 및 모델이 필요하다.

도전과제

이러한 도전과제는 다음의 실용적 경제모델을 필요로 한다.

- | | | |
|---|---|--|
| 1. 더 이상 선진국 대 개도국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사람 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제이다. | → | 1.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에게 초점을 맞추어 불평등에 대처한다. |
| 2. 기후변화 는 더욱 중요해졌다. 더 이상 환경재앙의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혔으며, 이에 대한 실천적 행동과 메커니즘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 | → | 2. 환경 에 대한 보다 큰 책임성을 갖는다. |
| 3. 원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국제무역, 투자, 민간부문의 기업활동 및 기타 국제자금흐름 속에서 상대적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 → | 3.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자원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경제구조를 재조정하기 위한 시장 구조와 교역 방식 을 갖는다. |
| 4. 교역과 투자의 조건이 중요하다. 누가 부의 형성으로 이익을 얻는지 가 평등의 정도를 결정한다. | → | 4. 성장의 혜택을 보다 평등하게 나누고 , 가치를 뽑아내기 보다는 동등하게 재생하여 그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부를 재투자한다. |
| 5. 협력 은 경쟁과 함께, 때로는 경쟁을 대신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 5. 보다 강화된 협력 을 추구한다. |
| 6. 투명성과 책무성 은 부와 자산을 보호하고, 신용을 쌓고 부패와 사기, 자본도피를 방지할 수 있다. | → | 6. 투명성과 책무성 을 급진적으로 확대한다. |

20

Thankyou

Thankyou는 2008년 19세 소년 Daniel Flynn과 그의 친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호주에서 음료수 판매로 시작한 이 업체는 현재 Thankyou Water, Thankyou Food, Thankyou Body Care 등 3가지 브랜드로 확장되었고, 총 46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다. 고객이 이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금의 일부를 전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에 기부하게 된다. 호주의 전국적 기업이자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상품 시장의 애플사”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 업체는 동명의 복지재단(Charitable Trust)에 의해 소유, 운영된다. 이윤을 나누는 외부 투자자나 주주는 없다. 한정된 자금 내에서 모금 경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좋은 목적을 가진 새로운 돈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www.thankyou.co

Karuna Trust

Karuna Trust는 지난 20년 간 인도에서 백 만 명 이상에게 보건 및 개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소외지역에 보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자체의 공공 인프라 및 지역사회 자금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지방정부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지역보건센터(Primary Health Centre, PHCs)를 Karuna Trust에게 맡기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했고, 공공기관이 제공하지 못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관리에 대해 지방정부가 Karuna Trust에 보상을 제공한다.

이후 사업분야는 화상치료, 안과 및 치과 치료, 정신 치료 등으로 확대되었고, 단순 보건 프로젝트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과 아동보건소 사업도 진행한다. 2002년에는 의료비 뿐 아니라 실업보험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보험을 개발하였다.

www.karunatrust.com

이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지닌 비즈니스이다. 이것은 이윤을 재투자하고 협력에 기반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닌 영업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은 명확한 사회적·환경적 목표를 가지고, 수익의 대부분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하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윤을 재투자하고, 책무성과 투명성을 지니며, 참여적이거나 민주적인 거버넌스 혹은 소유권 구조를 갖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의 특징들은 앞서 언급한 6대 도전과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영업활동의 중심에 두고 번영, 사람, 지구를 위한 목표를 추구한다. 사회적기업은 불평등을 개선하고, 거래활동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부를 창출하면서 이윤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 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지닌다. 법적, 거버넌스적 구조에 입각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의의 개념을 넘어 사회적 목적을 지닌 여러 사업체들이 존재한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수 백 만 명의 개인 사업가 및 가족기업이 있다. 때로는 협동조합이나 기존의

자선단체 혹은 NGO가 보다 기업가적인 모델을 도입할 수도 있다. 반면에, 윤리경영, 사회적 벤처 및 책임있는 민간기업은 가치에 기반한 접근으로 이윤을 얻고자 한다. B. Corps는 목적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는 아이디어가 주목 받고 있으며, 보다 책임 있는, 포괄적인 자본주의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한다. 모든 사업체는 보다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잠재력을 지닌다.

몇몇 훌륭한 사회적기업만으로 우리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 만이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기업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논의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목적을 지닌 여러 사업체들은 우리의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뢰가능하고 실용적인 경제모델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거래활동으로 얻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통해 매일 전 세계 수 백 만명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지닌 사업체는 영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영업활동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준다. 무역이 공정할 수 있고, 공급사슬이 윤리적일 수 있으며, 고용자가 실제적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소비자 역시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는 민주적일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상업활동이 있으며, 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방식이다.

사회적기업의 대두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우리의 공동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Yes).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년간 전세계적으로 변화했다. 보다 책임있고 참여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수사가 퍼져가는 동안, 사회적기업은 실재하고 있었다. 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은 자신들을 위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국제기구, EU 기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정책연구소, 기업인, 거액 기부자 등은 마을, 지역,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세계적 포부를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22 **전세계적으로**, 국제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Diego Angel-Urdinol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소득불평등에 있어 중요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빈곤가계의 소득을 향상 시킴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세계은행은 또한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지역사회 주도발전(Community-Driven Development, CDD)의 가능성을 필리핀 정부, 호주 외교통상부 및 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실험하고 있다.

2015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UN개발재원총회에서는 어떻게 관료 및 정치인들이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는지 보여준다. 결과문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민간기업의 활동 및 투자, 혁신은 생산성 확대와 포괄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다. 우리는 극소기업(micro enterprise)부터 협동조합, 다국적기업에 이르는 민간부문의 다양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모든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창의성과 혁신을 적용하기를 요청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들 활동의 환경적·사회적·거버넌스적 영향을 고려한 핵심 사업 모델을 받아들이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투자수익을 비금융적 영향과 결합한 임팩트 투자를 장려한다. 우리는 자율적이며 의무적인 규칙 간의

적절한 균형을 결정한 국가들과 함께, 환경적·사회적·거버넌스적 요소들을 기업 보고에 결합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들이 책임 있는 사업과 투자의 원칙들을 채택하는 것을 장려한다...”⁶⁰

UN사회개발연구소(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는 최근 가장 가난한 계층의 소득 성장을 견인할 방법으로 동료참여 모델, 윤리적 은행, 협동조합 및 기타 형태의 사회적, 연대적 기업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기업 월드포럼(the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과 ‘몽블랑 사회연대경제기업가 국제포럼(the Mont Blanc International Forum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ntrepreneurs)’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EU 기관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지닌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한 소셜 비즈니스 이니셔티브(Social Business Initiative)*를 최근 발표하고 이를 EC의 핵심사업으로 규정하였다. EU의 개발전략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인간중심형 사업모델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며, 사회적 문제에 포괄적 해법을 제시”⁶¹한다고 밝힌다. 이 전략은 “성공적인 포괄적 사업모델과 개발과제에 대한 혁신적, 시장적 해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EU의 민간부문 지원은 “일자리 창출, 포괄성 및 빈곤지원”을 중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접근은 “인간중심형 사회적기업체, 협동조합, 노동자 및 근로자 기관” 등을 포괄하고 “시장형 접근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업가들에게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⁶²이 있다고 설명한다. 유럽 의회 국제개발위원회의 Linda McAvan 의장은 “민간부문은 단지 대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토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중략) ...나는 사회적기업이 이 중 하나라고

⁶⁰ http://www.un.org/esa/ffd/wp-content/uploads/2015/08/AAAA_Outcome.pdf
⁶¹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14DC0263>

⁶²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14DC0263>

생각하며 영국문화원이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고 EU 대표 기관들도 사회적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사회적기업 분야는 국내의 제도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이 분야를 지원하고 있지만, Grameen과 BRAC 등을 창립한 방글라데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영업활동이 긴 역사를 지닌다

- 인도 과학기술지구과학부장관 Harsh Vardhan 박사는 “이러한 변화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담아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정책조언을 시작했다. 태국정부는 사회적기업청을 창설하고, 사회적기업 종합계획을 이행할 행정권한을 부여했다.
- 베트남에서 새로 발의된 2014 기업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소개하고,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장려, 지원,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 미얀마 대통령 경제자문관인 Aung Tun Thet 교수는 “민간부문은 성장의 엔진임이 분명하나, 우리는 다른 형태의 보다 책임있는 민간부문을 원한다”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 Najib Razak 수상은 말레이시아 사회적기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전 세계 많은 정부에서 강조되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잠재력을 말레이시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사업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재정립하는 것에도 활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적기업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의제였고, 2006년 제정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 정책 체제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설립되었다.

최근 유럽회의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통해 성과를 낸 사례들이 있으며, 보다 포괄적 개념인 사회적경제가 “관료 및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보여주고, 이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다룰 힘이 있기 때문”⁶³이라고 분석한다. EU 회원국 내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았지만, 다른 대륙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지역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이 다소 간과되어 왔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경제가 아프리카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큰 범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EU경제사회위원회는 “사회적경제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혁신과 역동성, 유용성, 위기 회복력을 가질 뿐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기에 차별성을 지닌다. 아프리카는 상호지지와 공동기업에 대한 전통을 지니고 있어, 협동조합 및 다른 형태의 상호기업이 발달해 왔는데… 사회적기업은 삶의 질에 대한 점진적 발전과 변형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프리카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주요 공여국인 EU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다”⁶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러한 논의를 이끌기도 한다. 유니레버의 CEO Paul Polman은 사회적 변화에 있어 기업이 지닌 강력한 힘에 관해 발언을 계속해왔으며,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은 몇몇에 불과하다… 나는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통한 경제발전이 빈곤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항상 믿어왔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이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⁶⁵ Polman과 그의 팀은 기업의 역할이 SDGs 이행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은 책임과 성공의 조건을 재정의하고, 평등한 기회, 노동에 대한 공정한 수익,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환경 존중의 필요성에 적극 동참해야”⁶⁶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는 정부, Social Enterprise UK (영국 사회적기업 협의체 - 사회적기업의 연구, 정책수립 및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기업의 인식확산 위해 활동하는 영국의 기관: 억주), 영국문화원 등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영국의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공 예산의 일정 부분을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를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사회가치법이 도입되었다. 영국 국제개발위원인 Justine Greening은 “기업은 경제 성장의 주요 재료이고, 특히 이윤 추구하고 함께 개발성과를 달성하려는 기업은 영리를 확보하면서 (doing well) 좋은 일(doing good)을 할 수 있다”⁶⁷고 평가하였다.

Social Enterprise UK의 이사이자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의장인 Peter Holbook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장에 기반한 해결법은 드라마틱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영국의 성공 이야기이다.”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⁶³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etudes/join/2014/433787/EXPO-DEVE_ET\(2014\)433787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etudes/join/2014/433787/EXPO-DEVE_ET(2014)433787_EN.pdf)

⁶⁴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08522148521&uri=CELEX:52010IE0992>

⁶⁵ http://www.unilever.com/Images/Paul_Polman_UN_Open_Working_Group_SDGoals_tcm13-379200_tcm244-420733.pdf

⁶⁶ <http://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blog/b-team-business-responsibility-inclusive-prosperity>

⁶⁷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g8-impact-investment-event>

사회적기업의 규모

일부에서는 (심지어 사회적기업 옹호자들조차)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틈새시장임을 지적하며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공헌도를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통계결과는 이러한 편견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G8 소셜 임팩트 태스크포스'는 "사회적 섹터의 기관이 이미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GDP의 5% 이상을 차지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 노동력의 10%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조직은 전세계 많은 국가의 주요 경제 부문을 구성한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비영리 분야가 고용의 각 15.9%, 13.1%를 차지하는데, 이는 외식업분야 보다 높다.⁶⁸

스페인에서 사회적경제는 전체 고용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몬드라곤 협동조합만 스페인 전체 어업산업의 비중을 넘는 100억 유로를 차지한다.⁶⁹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GDP의 3.5%를 차지하는데, 이는 실리콘밸리가 차지하는 비중 보다 크다.⁷⁰



일부 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엘리트 친화적이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충분한 사업자금을 가진 운 좋은 사람들의 활동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Social Enterprise UK가 발간한 <2013 사회적기업 보고서 (Social Enterprise Report 2013)>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영국 내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체 사회적기업의 38%가 영국 도시 중 하위 20%에서 영업 중이다. 같은 지역에서 중소기업은 12%만이 영업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사업체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성임원비율은 중소기업이 19%, FTSE 100(런던국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우량주식: 역주) 구성기업의 3%에 그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38%를 차지한다.

BAME(백인이 아닌 소수인종출신) 이사진 참여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11%이나, 사회적기업은 28%를 기록했다.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는 GDP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농업의 규모를 상회하고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전체 규모와 맞먹는다.⁷¹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부문은 국가 GDP의 15%, 총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데, 이는 와인 산업 보다 큰 규모이다.⁷²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GDP의 3%를 차지하며, 이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상회하는 규모이다.⁷³

케냐에서 협동조합은 GDP의 45%를 차지하며, 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보다 큰 규모이다.⁷⁴

⁶⁸ <http://thezeromarginalcostsociety.com>

⁶⁹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

⁷⁰ http://www.huffingtonpost.com/ben-thornley/social-enterprise_b_2090144.html

⁷¹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nferences/2014/0116-spical-entrepreneurs/docs/140210-europolitics.en.pdf

⁷² <http://www.socialimpactinvestment.org/reports/impact%20>

⁷³ http://www.reliess.org/centredoc/upload/SocialEconomy_KoreanCaseStudy_FinalRevision_201309.pdf

⁷⁴ <http://ica.coop/en/co-op-facts-and-stats>

결론

우리는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동의 목표를 세웠으며, 사회적기업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무적인 모델과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지표로 구성된다. 하지만 SDGs는 **기업의 중대한 역할을 반영하지는 못했고**, 책임 있는 교역,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지 못했다.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는 다음의 문제를 지닌다: SDGs는 기업의 “규모”라는 하나의 특성만 선택한 반면, 기업이 그 존재 자체로 새로운 개발목표에 어떻게 보조를 맞출 수 있을 지 포함하지 못했다. SDGs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인류 공동의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이루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26 합의문 내 목표 12.6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은, 지속가능한 사업형태를 구현하고 사내 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만약 우리가 그 이상을 예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회칙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만약 각각의 환경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방법만을 찾다보면 실제로 무엇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간과하고, 글로벌 체계 내에 깊이 자리잡은 진실된 문제들은 가려질 것이다.”⁷⁵

UN 글로벌 콤팩트, 지속가능성보고서(GR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은행 위원회(WBCSD)는 SDG 달성을 위한 기업의 공헌도를 파악할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를 수립했다. 영국 ODI는 기업이 어떻게 국제개발체제 내에 참여할 지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이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토론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이 어떻게 실제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 공헌할 지, 어떻게 향후 목표의 기획과 이행체계에서 민간부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토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SDG의 핵심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평가한다.

- 국제협동조합연맹(ICA)과 국제노동기구(ILO)는 “UN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을 인식하고, SDG 지표, 목표, 메커니즘 내 협동조합을 포함해야 한다”⁷⁶고 주장했다.
- 영국 국제개발부 혁신허브를 총괄하는 Jonathan Wong은 최근 밀란 회의에서 “우리는 사회적기업가가 전세계 어디에서든 SDG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Diego Angel-Urdinola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UN, OECD, 세계은행 및 지역은행들은 매년 10억 달러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세계은행이 민간부문에 19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SDGs는 사회적기업의 공헌에 대한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를 수정하기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기업은 부를 창출하고 세상을 개선하는 고귀한 소명을 지닌다. 따라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발전에 유익한 자원이 될 수 있다.”⁷⁷

- 프란치스코 교황

⁷⁵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encyclicals/documents/papa-francesco_20150524_enciclica-laudato-si.html

⁷⁶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licy/untaskteam_undf/thinkpieces/21_thinkpiece_financing_development.pdf

⁷⁷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encyclicals/documents/papa-francesco_20150524_enciclica-laudato-si.html

제언

시대를 정의하는 기점에서 우리는 전체 경제체제의 근본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며, 경제 게임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사고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넓히고 사회적으로 무역(Think Global, Trade Social)** 해야 한다. 우리는 시장을 개혁하고 세계 무역의 조건을 재조정해야 하며,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일반 기업들이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구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1. SDGs가 “인류,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 되도록 목표이행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잠재력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
2. 2015년 9월 이후 SDGs 이행으로 일어난 변화에 따라 정치인과 공공기관들은 사회적기업이 개발에 관한 정치적 수사를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2016, 2017년 고위급패널포럼 등에서 목표이행을 위한 메커니즘과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므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목표를 가진 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3. G20 및 기타 협의체들은 2013년 G8 글로벌 임팩트 투자 태스크포스의 경험을 기반으로, 자금지원에서 나아가 시장개혁, 조달, 지배구조, 법률제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육성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4. 국제기구 및 금융기구들의 투자, 프로그램 및 정책이 평등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5. UN 등 국제기구는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기업들을 육성할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국제협동조합연합, UN 사회연대경제기구, 글로벌임팩트투자 네트워크(GIIN), 몽블랑 사회연대경제기업가 국제포럼 등 국제 인프라를 강화, 개발해야 한다.
6. 원조기관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또한 원조자금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7. 전세계 정부는 시장형성 및 변혁에 관한 본연의 역할을 인지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책임에 맞는 기업 활동을 지원할 정책들을 개발하고, 현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정책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 보다 강화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세금, 조달 및 규제 등에 적절한 인센티브 활용
 - GDP, 혁신,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기회 창출 및 사회적 자본 구축 등에 있어 사회적기업의 공헌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고객, 투자자 등이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행위의 투명성 제고
 - 사회적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
 - 기업가들이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병행하여 창출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형태 조정 및 구축
8. 조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원칙이 연방 및 주 정부뿐 아니라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 보다 넓게는 전 세계 기업 커뮤니티에 확대되어야 한다.
9. 정부는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UN의 표현대로, “조세, 보조금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개발에 목적을 둔 세금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

Social Enterprise UK(SEUK, 영국 사회적기업협의체)는 영국 사회적기업을 위한 회원제 기관이다. 회원기관은 사회적기업 운동에 참여하는 지역 풀뿌리 기관에서 대규모 기업체까지 다양하다. SEUK는 연구, 정책수립 및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기업의 인식 확산을 위해 활동한다. 사회가치법(Social Value Act) 제정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관련 법안 개발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관해 영국 내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SEUK는 사회적기업의 시장확대 및 공동 목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교육훈련, 컨설팅 및 연구 활동을 시행한다.

SEUK는 글로벌 사회적기업운동을 확산하고자 국제파트너들과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을 알리고, 우수사례를 나누며, 국제개발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해 홍보한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고자 하는 해외 대표단을 맞이 하고 전 세계 컨퍼런스 및 정책토론에 참여한다. SEUK는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의 위원회를 이끌고, 국제적으로 영국문화원과 함께 영국 사회적기업을 대표한다.

영국문화원은 교육,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영국의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1934년에 설립되어 전세계 100 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전세계 사람들과 지식과 생각의 교류를 통하여 영국에 대한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

영국문화원은 영국 내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적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인 교류와 발전을 지원한다. 2009년에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가 및 NGO 실무자가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개발의 접근방식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을 홍보한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과 영국의 경험의 전문성을 국내외 파트너들과 공유한다. 영국의 사회적기업 및 관련 조직이 해외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영국문화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변화, 포괄적인 성장, 지속가능발전을 지지하며, 영국의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전세계 사람들과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Designed by
The Champion Agency
a proud member of
Social Enterprise UK.

**THE
CHAMPION
AGENCY.**